

첨삭답안	고려대학교 2013 모의논술 '사실'	작성자	Matt K 님
------	----------------------	-----	----------

[문항 1]

(1)에는 역사적 사실을 탐구할 때 어떤 가치관을 기반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서로다른 세 가지 입장이 나타난다. 첫 번째 입장은 역사적 사실을 탐구할 때 객관성을 기반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객관적인 사료비판과 직관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역사의 복원을 통해 이를 추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입장은 역사적 사실은 주관성을 기반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역사가의 의미부여를 통한 역사적 사실 기술을 통해 이를 추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입장은 객관성과 주관성을 같은 비율로 추구하면서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탐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역사가의 적절한 조율을 통해 이를 추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2)는 (1)의 두 번째 입장과 세 번째 입장과 유사하다. 인간은 문학적인 분야에서 상상의 산물에 감정이입을 통해 의미부여를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사실과 혼동하여 진실처럼 믿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실을 기반으로 하여 상상의 산물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객관과 주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3)은 (1)의 첫 번째 입장과 세 번째 입장과 유사하다. 인간은 언론 분야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추구하며 최대한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려한다. **2. 그러나 과도한 객관적인 사실의 추구가 지나친 일반화와 과대표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주관성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어떤 사실을 탐구할 때는 객관성과 주관성이 서로의 맹점을 상호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탐구해야 한다.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든지 간에 구매 받지 않고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을 인간이 인식할 때 필연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게 된다. **3. 인간은 사실을 완벽하게 인식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더러 이것을 표현할 때 상상력이 가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2)의 사례에서도 그렇듯 사실이 아닌 문학에서도 인간은 공감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아예 객관성을 추구하지 말고 주관성만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주관성만을 추구할 경우 거짓이 판치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고로 객관성과 주관성의 맹점을 상호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을 탐구하려 할 때, 가장 사실에 근접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첨삭 포인트]

1. 이 문제는 비교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부분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1문단은 답안지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무의미한 서술만 늘어지고 있습니다.
2. 제시문 오독입니다. 제시문은 객관적 서술도 중시하지만, 해석 공동체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객관성의 추구가 일반화와 과대표장으로라는 부분은 제시문에 근거한 비약입니다.
3. 인간이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사례로 (2)의 문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맥적으로 다른 논의를 하고 있기에 예시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합니다.
4.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카'의 의견을 다른 의견들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시는 답안인데요. 이 때 위에서 서술하신 다른 입장들의 두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왜 '카'의 의견이 더 타당한지에 대한 논리가 부족합니다.

B-

총평	형식적, 내용적으로 아쉬운 답안이었습니다. 첨삭을 참고하시어 약점을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	---

사전협의 없는 무단 도용,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